10돌 대행선연구원 '마음·견성' 논한다

6월 2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초기불교 · 한국불교 등 관점서
마음 · 견성 중심 '선불교' 조망
묘공학술상 · 장학증서 수여식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선불교의 핵심인 '마음'과 '견성(見性)'을 통해 선불교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행선연구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을 대주제로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선불교에서 '마음'과 '견성'을 중심으로 초기불교와 중국 선종, 한국 선불교, 대행 선사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며 이를 통해 선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학술대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박보람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초기불교와 선종의 깨달음 문제를 다룬다.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번뇌가 있는 중생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를 통해 초기불교의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번뇌와 깨달음의 관계를 고찰하며,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선종의 깨달음이 갖는 특수성-원환적 회귀를 중심으로'를 통해 선종의 깨달음이 일상으로의 회귀와 보살행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구조를 분석한다.

김호귀 동국대 교수는 '견성의 속성과 기능 고찰'을 발표하며 선종 수행의 핵심 개념인 견성의 의미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1부 논평은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허진 박사(동국대), 이진영 동국역경원 연구원이 맡는다.

정준영 교수가 좌장을 맡는 2부에서는 대행 선사와 선불교의 견성을 다룬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한마음과 견성'을 통해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과 주인공 관법을 조명하며,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견성 이후 삶에 대한 선불교적 고찰-오후보림을 중심으로'에서 깨달음 이후의 수행과 삶의 실천 문제를 선불교 전통과 대행선 사상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부 논평자로는 박보람 충북대 교수, 손흥철 태산학술원 객좌교수가 참여한다.

학술대회 중에는 제8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8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제8회 묘공학술상 수상자로는 최우수상은 없이 우수상에 김두식 불교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의 '대행 선사 관련 연구의 지식 지형과 시계열 변화-LDA 토픽 모델링을 통한 학술 담론 분석'이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대행 선사 관련 연구 논문 96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대행선 연구의 발전 과정과 학술 담론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묘공학술상은 2027년부터 운영 방식이 개편된다. 기존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대행선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한마음연구〉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제9회 묘공학술상은 〈한마음연구〉 제17집(2026년 8월)과 제18집(2027년 2월)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제8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식에서는 박사과정 9명, 석사과정 3명 등 총 12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증서를 받는다. 선정된 장학생들에게는 2026학년도 1·2학기 동안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대행선연구원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선불교의 핵심 주제인 마음과 견성을 초기불교와 조사선, 한국 선불교, 그리고 대행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라며 "지난 10년간 축적된 대행선 연구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제8회 묘공학술상 시상과 제8회 묘공학술장학 증서 수여를 통해 우수 연구자와 차세대 불교학 인재를 격려함으로써, 대행선연구원이 추구해 온 학술 연구와 인재 양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행선연구원 제10회 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만해 스님 시대정신, '도덕문명'에 있다

조성환 교수, 만해아카이브硏 · 불교평론 학술대회서 주장

만해 스님 언급한 '도덕문명'
'개벽파' 관점서 분석 · 조명
"만해의 도덕, 평화 등 포괄
불교가 도덕문명 친화적 인식"



만해아카이브연구소와 불교평론은 6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님의 침묵(沈默) 백 년, 만해의 삶과 시대정신'이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시대정신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만해아카이브연구소와 불교평론은 6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님의 침묵(沈默) 백 년, 만해의 삶과 시대정신'이란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성환 원광대 철학과 교수는 '만해의 삶과 시대정신'에서 만해 스님이 가졌던 시대정신을 '개벽'과 '토착적 근대' 개념을 통해 분석·조명했다.

'개벽'은 1860년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서세동점의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문명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문명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천도교의 '삼대개벽', 원불교의 '정신개벽' 등으로 이어지며, 이들의 사상적 공통점은 "서양의 물질문명에 대해 '도덕문명' 또는 '정신문명'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데 있다.

만해 스님 역시 '도덕과 종교', '도덕문명'을 저서 〈조선불교유신론〉에서 11차례 언급하고 있다. 실제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 '불교의 성질'에서 "종교요 철학인 불교는 미래의 도덕문명의 원료품 구실을 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만해는 미래에 도래할 문명을 '도덕문명'으로 전망하며 불교가 이를 구현하는 사상적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는 만해 스님이 서구제국주의와는 다른 형태에 '문명'을 지향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만해 스님은 '문명=서구'라는 개화파적 등식이 아닌 '문명=도덕'이라는 다른 문명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만해 스님은 공법(公法)이 아닌 대표를 사용하는 행태를 '야만적 문명'이라 했는데 이는 '군국주의'를 의미하며 '도덕과 종교'는 공법과 진리를 따르는 '도덕문명'을 지칭하고 있다.

조 교수는 "만해에게 있어 '도덕'은 단순한 윤리나 규범이 아닌 종교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비폭력, 평화, 정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이 같은 가치가 실현된 문명을 '도덕문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덕문명' 개념은 만해의 삶과 사상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면서 "만해가 왜 일본에 대해 비폭력 저항운동했는지, 3·1만세운동에 가담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만해 스님은 '도덕'의 개념을 인간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이는 만해 스님이 주창한 '만유평등'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서양 사상을 수용하며 평등의 개념은 '인간 안에서의 평등'으로 좁혀지지만 만해 스님은 근대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전통적인 '만유평등' 개념을 고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 근대의 '만인평등' 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조 교수는 "만해의 평등 개념은 도덕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만물을 아우른다"면서 "전통 불교적 관점에서는 서구의 개인적 평등 관념이 추가된 셈이고 서구적 평등 개념에서 보면 평등의 대상이 만물의 차원으로 확장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해가 지향한 '도덕문명'은 전통과 서양이 어우러진 보다 고차원적 평등, 자유, 평화, 정의가 구현된 세계이고, 이 세계를 만해는 '님'이라는 시어로 표현했다"며 "다만 아직 그 '님'은 현실에 도래하지 않았기에 '침묵'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선이 경희대 교수의 '〈님의 침묵〉 100주년의 문학적 의미'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철학으로서 시의 가능성'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교수 불자들 한국·일본 명상 수행 살핀다

교불련, 2026 교수불자대회
6월 30일~7월 2일 부산서
韓日 불교 종단 명상체험

교수 불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불교 종단의 명상 수행과 세계의 명상 현황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올해로 창종 90주년을 맞은 신뇨엔과 함께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하얏트 플레이스 호텔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세계의 명상과 한·일 불교 종단의 명상 수행법'을 대주제로 '2026 한국교수불자대회(이하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 선덕 월암 스님의 '간화선의 대중화와 한국불교 명상의 현대적 계승'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여는 이번 대회는 2일에 걸쳐 한국과 일본 불교 종단의 명상 수행에 대한 강연과 체험이 이뤄진다.

6월 30일에는 혜주 스님(동국대)을 강사로 '조계종의 선명상 수행 이론과 체험'이 진행되며 7월 1일에는 '신뇨엔의 명상 이론과 체험(로버트 고로쵸스키·신뇨엔 국제부)', '천태종 법화수행 이론과 체험(광도 스님·금강대)', '진각종의 밀교수행 이론과 체험(권기현·위덕대)', '태고종의 명상 수행, 인공지능과 화두 타파 체험(태현 스님·자비선원장)'이 진행된다.

세계 명상 수행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주제발표들도 주목할 만하다. 대회에서는 미국 위앙종의 현안 스님의 '미국 명상의 대중화와 불교 수행의 과제'를 비롯해 △'일본 근대불교 종단의 명상 수행과 치유 효과(이석환·동국대)' △'영국의 명상 역사와 현황(황미향·행복명상연구소)' △'세계 명상 트렌드 속 한국 선명상의 고령자 적용 가능성(김은희·동아대)' 등 세계 각국의 명상 수행 현황을 조명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전법 특별 세션'이 올해에도 진행된다. 세션에서는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이 '문화포교와 대학생 전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유주연 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 '대학생이 바라보는 대학생 전법의 올바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연과 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이번 대회는 한국적 명상 콘텐츠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인왕 대종사 10주기 다례재 및 사리보탑 제막식 원만 회향

감사드립니다.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으로 6월 7일 옥천 대약사사에서 봉행된 〈연화경 인왕 대승정 연화 사리보탑 제막식 및 여래종 60년 중흥종사 다례법회〉를 여법하게 마쳤습니다.

인왕 대종사님의 탄생 100주년과 원적 10주기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 종단의 대덕 큰스님들과 내외 귀빈, 그리고 온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내주신 정성을 받들어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기 2570(2026)년 6월 7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전종도일동 합장

